

<서평>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

Gospel of Glory: Major Themes in Johannine Theology

리처드 보컴 저, 문우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김동수*

성서학자를 그 학문함의 특색에 따라 몇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자들의 견해를 잘 정리하고 자신의 대안을 내놓는 학자들이 있다. 던(James D. G. Dunn)이 이런 학자군의 대표자다. 『신약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비롯해서, 그의 책들은 작금의 학문의 지형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는 바울 신학에 있어 새 관점의 첫 주창자는 아니었으나, 이를 정리하고 발전시켜 이 학파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가 되었다. 둘째, 방법론에서 새 길을 여는 학자들이 있다. 볼트만(R. Bultmann)이 전형적으로 이러한 학자다. 그는 공관복음 연구에서 양식비평의 길을 열었고, 요한복음 연구에서 자료 비평의 길을 열었다. 흥미롭게도 그에게서 방법론을 취한 학자는 있지만 요한신학 연구에 있어서 현재 그의 견해를 그대로 따라가는 학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그 분야의 모든 학문을 종합해서 주석서를 잘 쓰는 학자들이 있다. 쉬나켄부르크(R. Schnackenburg)는 요한신학에 대한 단행본이나 논문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고전이 된 주석서를 냈다. 넷째, 그 분야의 학문의 새로운 길도 열고 논문도 많이 쓰고 기념비적인 주석서를 쓰는 학자들이 있다. 요한복음 연구 분야에서 브라운(R. E. Brown)이 바로 그런 학자였다.

* 평택대학교 교수, 신약학

그는 20세기 요한복음 연구의 대부로 불린다.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의 저자 보컴은 사실 위의 네 범주 어디에 넣기도 힘들다. 그는 분명히 현 학문 세계의 지형도를 그리는데 흥미 있어 하는 학자는 아니다. 또 그는 신약의 주요 문헌의 주석서를 집필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느 한 책의 자구 하나 하나를 수십 년간 연구하여 주석서를 내는데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가 주석 방법론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도 아니다. 또 그는 신약성서 어떤 한 책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도 아니다. 그의 관심 연구 분야는 신약학과 교부학은 물론 심지어 현대 신학자인 몰트만(J. Moltmann) 신학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그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당연히 하는 전제를 문제 삼는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는 그 길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보컴의 서 있는 자리이고, 그가 신약학에서 공헌하고 있는 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책 저술을 주도하면서 그는 20세기 후반부터 복음서 연구에서 사회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모든 복음서가 특정한 공동체를 위해서 썼다고 믿고 복음서 연구에서 그 배후에 있는 공동체를 주로 연구 주제로 삼는 것에 이의를 건다. 그는 성서학자이기 이전에 역사학자로서 당시에 복음서와 같은 문헌이 특정 공동체만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독자층을 겨냥해서 쓴, 공적으로 출판된 문서라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힘차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분명히 나뉘었다. 이러한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는 학자들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복음서 연구에 신기원을 열어줄 수 있다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물론, 그의 도전이 다른 학자들의 학문 방법을 흔들어 학문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의 질문과 대답은 복음서 연구가들에게 잠시 호흡을 멈추고 자신의 전제가 맞는지 돌아볼 기회를 주었다.

『예수와 그 목격자들』은 보컴의 행보와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의 대표작이다. 그는 복음서가 여러 공동체에서 구전에 의해서 편집되고 각색된 자료를 복음서 저자가 사용한 것이라는 복음서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거슬러, 공관복음서는 목격자의 증언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요한복음서 자체는 목격자의 저술 자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그의 주장이 복음서 연구의 ‘패러다임 쉬프트’를 가져다주었다는 찬사가 있기도 했다. 어쨌든, 보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당연히 여기고 사용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뒤집는 경향성의 문제작을 냈다.

2015년에 쓰인 것이, 곧바로 우리말로 재빠르게 번역된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도 보컴의 학문하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저술이다. 본서는 원제는 요한복음을 “영광의 복음”이고, 요한 신학의 주요 주제라는 부제로 8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장 “개인주의”
- 2장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
- 3장 영광
- 4장 십자가, 부활, 승귀(昇貴)
- 5장 성례전들?
- 6장 이원론들
- 7장 요한복음 첫째 주간의 다차원적 의미
- 8장 요한복음의 예수와 공관복음의 예수

이러한 주제는 “개인주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한복음 연구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각 장은 원래 독립적으로 논문이었기에 본서는 하나의 논지를 펼친 책이 아니다. 그래서 본서를 평함에 있어 나는 각 장에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비평하기보다는 본서에서 보컴이 사용한 방법론과 전체에 집중하려고 한다.

보컴의 특색은 요한신학을 주제적으로 연구하면서 요한신학 연구의 거대한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마틴(J. Louis Martyn)이 요한복음을 예수 이야기와 공동체 이야기 양 층 드라마로 읽자고 제안한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요한복음 연구는 요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대세를 점했다. 물론, 이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완성된 본문 안에서의 역동적

작용과 문학적 장치를 연구하는 문학비평이 1980년대 이후 요한신학 연구의 한 부분을 점유했지만, 대체는 아니었다. 그 동안 소홀히 했던 것은 요한복음 저자를 한 개인 신학자로 보고 그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보کم은 이전 저술에서 밝힌 대로 요한복음 저자를 목격자 신학자로 보고 요한신학의 주요 주제를 살피고 있다. 나는 보کم의 이러한 방법이 정당하다고 본다.

바울이라는 역사상 실존 인물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바울 신학’이라는 말을 쓴다. 이것은 바울이라는 신학 사상가가 이전의 유대교와 헬라 사상에서 어떤 것을 빌려 왔고, 영향을 받았고, 자신이 어떤 정황에서 그의 신학을 전개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누가 신학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누가의 신학은 누가가 남긴 문헌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가의 신학 사상을 흔히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요한 신학을 말할 때도 이런 의미로 썼다. 요한 신학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남긴 문서에 나타난 그의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요한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 요한이라는 인물의 신학사상을 말하기보다는, 요한이라는 이름 배후에 있는 공동체의 역사에 관해서 말할 때 이 말을 주로 사용했다. 요한 문헌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작품이라고 여기고, 거기로부터 출발하여,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그 공동체의 역사를 찾으려 했지, 요한 문헌에서 한 개인의 신학을 찾아내려 하는 ‘요한의 신학’이라는 말을 쓰기 꺼려했다. 요한 연구는 흔히 요한 공동체의 역사 연구와 동일시되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저자가 누구인지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요한문헌을 다룰 때 ‘사도 요한의 신학’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요한문헌을 그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한 개인이 썼고, 그 사람의 사상을 말할 때 ‘요한의 신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색한 것은 아니다. 요한 문헌이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는 특수한 공동체의 상황에서 쓰였고, 요한문헌의 정황이 그 공동체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요한 신학을 말할 때 공동체 정황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나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작성의 최종 책임은 어떤 한 개인에 있었고, 이 문헌에는 그 개인의 사상이 깊이 배어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컴의 연구 방법은 비록,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지만 정당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또 한 가지 보컴이 본서에서 요한신학 연구자들이 대부분 취하고 있는 전제를 거스르는 것은 그는 요한복음을 공관복음과 독립된 전승이라고 보지 않고, 요한복음 저자가 공관복음 특히 마가복음을 알았다고 보고 본서를 기술하는 것이다. 1938년에 가드너-스미스(P. Gardner-Smith)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독립된 전승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이후 학자들은 대부분 그의 견해를 따라갔다. 보컴이 본서 자체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전 논문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다음,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서를 기술한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의 예수와 공관복음의 예수”에 대한 장에서 이러한 전제를 적극 사용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예수에 대해서 비교한 그의 결과는 지금까지 학자들의 결론과는 다르게 나왔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예수는 각 공관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당연시 했었다. 그런데 보컴은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는 공관복음이 그리는 예수와 같은 예수이며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접촉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가 공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요한복음의 의도적인 미완성성 때문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저자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을 말하는데, 요한은 공관복음의 기적들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대표적인 표적들만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저자는 공관복음서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갈릴리 사역을 전제하고 예루살렘 사역 위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수 “계명들”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계명들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공관복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양자의 내용이 많은 면에서 있어서 다르게 보이지

만 사실상은 연결점이 많다고 한다.

둘째,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들도 공관복음의 주제들과 연결점이 있다고 한다. 기도, 보혜사 성령, 영생, 기독교 용어들과 호칭들, 그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나는 왔다” 말씀들, “나는” 말씀들과 같은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용어나 신학들은 사실 공관복음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겟세마네 장면도 자신의 죽음에 비통해 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12:27에 나오고, 요한복음 수난사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예수의 자발적인 죽음과 행동도 사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독립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상호의 빛 안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성육신과 선재 개념, 특히 예수가 신이라는 말이 공관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상과 양립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컴은 “요한복음이 예수의 인간적 감성들(11:33, 35, 38; 12:27; 13:21) 모두를 실제 강조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351)고 대답한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도 말하지만, 공관복음이 보여주는 인성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수난을 영광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이 “요한이 수난을 영광으로 희석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계시라는 높은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재정립한 것”(353)이라고 대답한다.

어쨌든, 이상을 통해서 보컴은 요한복음이 그리는 예수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았던 “진짜 예수”이며, 그 모습은 공관복음의 예수의 모습과 약간은 다르지만, 요한의 기술방식과 신학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며 양자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특색을 인정하면서도, 양자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학자들이 더 주목한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에 주목했다. 그는 비평적 성서이해를 반대하거나, 피해가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비평적 이해를 철저하게 관통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전통적

성서이해의 결론과 가까운 이해에 이르렀다.

보컴이 본서에서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의 신학을 찾아내려 할 때 쓴 주석 방법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고대 문서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적, 역사-비평적 방법과 요한복음이 기본적으로 신학 문서이기에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드워즈(Ruth B. Edwards)가 『요한 신학 발견하기』 (Discovering John)라는 책에서 취했던 방식과 같은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 비평적 방법과 본문의 문학적, 사회적, 역사적, 종교적 정황에 대한 지식이 본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오해를 방지한다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본 탐구는 가능한 한 요한복음의 본래 저자(들)가 전달하려고 했던 바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석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비평방법론들(본문이 완성된 ‘이후’의 해석사를 연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 어떤 조명을 주는 한에서 무시되지 않을 것이지만 복음서가 문학적인 장치의 매력보다는 종교적 메시지 때문에 읽히는 기본적으로 신학 작품이기에, 핵심 초점은 내용에 둘 것이다.¹⁾

보컴의 저술은 이러한 방법론으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기술된 주제들을 다룬 것이다. 최근 신약학계의 주요 흐름 중 하나는 성서 본문을 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 주제와 연관하여 해석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완성된 성서 본문 안에서의 수사에 관심하든지, 오늘의 경험과 이데올로기로 성서 본문을 재구성해서 읽든지, 아니면 본문 배후에 있는 공동체의 역사를 읽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원 저자가 원 독자에게 자신이 믿는 신앙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전에 비해 확실히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보컴은 이러한 학문적 흐름을 거슬러 요한복음 저자의 신학 사상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러한 보컴의 노력은 사실 많은 동료

1) Ruth B. Edwards, *Discovering John: Content, Interpretation, Recep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2014), 22-23; Craig S. Keener, *Spirit Hermeneutics: Reading Scripture in Light of Pentecost* (Grand Rapids, MI: Eerdmans, 2016).

학자들의 호응을 얻어 학문의 흐름을 뒤집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요한신학 이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